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

-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경영을 중심으로 -

김 화 임
(성균관대학교)

❖ 국문초록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세 분야, 생태, 경제, 환경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세 분야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그 논의는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으로도 수렴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애초 ‘문화’는 다른 세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적 역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독일어권에서는 점차 ‘문화’를 생태, 경제, 사회와 동등한 차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 환경 정책적 측면과 함께 문화적인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타머의 문화정책적 요구에 대해 살펴 본 후, 클라인의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 전자는 ‘지속가능한 문화’와 관련하여 전통을 중요시한다면, 후자는 칼로비츠의 지속가능성 이해에 입각하여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은 바로 ‘수요자 중심 이고 관객개발’로 요약된다.

주제어 : 지속가능성,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 빌바오-효과, 관객개발

1. 들어가며

지속가능성 개념이 전 세계적 차원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1972년 로마 클럽에서의 연구보고서, “성장의 한계”로 귀결된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 보고서의 음울한 진단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여러 나라들에서 독자적인 환경장관이 선출되었는가 하면,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조치 역시 잇따랐다. 그 결과 1987년 부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1983년 국제연합(UNO)에서의 “환경과 발전을 위한 세계위원”의 결의담변서 내용 중의 일부이기도 하다. 1992년 리오데자네리오에서 178개 국가 정상들이 ‘의제21 (Agenda 21)에서 서명함으로써 생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의 결합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결 조건으로 공식화되기에 이른다.¹⁾

외에 Ines Oehme에 따르면, 부룬트란트 보고서의 성과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조건을 서로 연관시키면서 발전개념을 전 지구적 시각 속에서 새롭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적인 생활조건을 남작, 증대되고 있는 수입과 자산의 불균등한 분배, 가난한 사람들의 수, 평화와 안전의 위협을 중심 문제로 삼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환경 보존, 사회 정의의 정립, 정치 참여의 보장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찾게 된 것이다.²⁾

부룬트란트 보고서 이래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세 분야, 생태, 경제, 환경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세 차원은 서로 의존적이어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여 “지속가능성의 삼각형” 혹은 “세 기둥 모델”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지속가능성의 논의에서 ‘문화적인 것’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스타머 Carsten Stahmer의 지적대로 미래 사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

1) www.agenda21-treffpunkt.de/archiv/ag21dok/index.htm, 10. Mai 2011.

2) Vgl. Ines Oehme, “Stand der Nachhaltigkeitsdiskussion: Eine Übersicht zur Konzeptualisierung im deutschsprachigen Raum,” Kulturelle Nachhaltigkeit. Konzepte, Perspektiven, Positionen, Larissa Krainer, Rita Trattning(Hrsg.), München, 2007, S. 205.

화의 의미는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였다. 문화가 관심 대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사회적 목적과 연관한 교육의 문제에 국한되었다. 문화에 관한 폭넓은 성찰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다.³⁾지속가능성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최근에만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과 문화의 관계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고, 그것이 문화정책, 문화에 슬경영으로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논의 과정

1987년 부룬트란트-보고서에서 문화와 관련한 주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항목별로 간간히 등장하는 정도였다. 1992년 <의제21>에서도 문화 주제는 다른 주제들과 연관하여 언급될 뿐 거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 즉 문화개념은 경작문화, 물 문화, 해양문화와 같은 개념 형태로 등장하였고, 숲의 문화적 다기능성과 관련한 언급 등에 그쳤다. 이때까지 문화적 요소는 그때그때의 목적 실현 차원에서 부수적으로만 언급되는 정도였다.⁴⁾ 지속가능성과 문화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90년대 이후 세계 유엔회의를 통해 점차 그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 1996년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이라는 제목의 <문화와 발전> 보고서에 이어 1998년 스톡홀름에서 유네스코의 “문화의 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의 상호 연관성이 한층 부각되었는데, 주된 논의는 문화적 창조성, 문화적 다양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문화정책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이때 문화정책은 인간의 창의성 및 창의성 발현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⁵⁾이를 계기로 점차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의 상호의존성⁶⁾이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3) Vgl. Carsten Stahmer, “Kulturelle Nachhaltigkeit – vom magischen Dreieck zum magischen Viereck?,” Wechselspiele: Kultur und Nachhaltigkeit, Oliver Parodi/Gerhard Banse/Axel Schaffer(Hg.), Berlin, 2010, S. 60.

4) Jürgen Kopfmüller, “Von der kulturellen Dimension nachhaltiger Entwicklung zur Kultur nachhaltiger Entwicklung,” Wechselspiele: Kultur und Nachhaltigkeit, Oliver Parodi/Gerhard Banse/Axel Schaffer(Hg.), Berlin 2010, S.44.

5) Vgl. Ebd., S.46.

유네스코에서의 논의는 독일어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998년 독일연방의회 앙케이트 위원회의 결론보고, “인간과 환경의 보호”(Schutz des Menschen und der Umwelt)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며, 지속가능성의 원칙에서 생태, 경제, 사회의 세 핵심 차원과 함께 문화와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측면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세 차원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문화가 논의되고 있어 문화에 대한 도구적 인식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정해야 할 행동 요구 측면에서 문화적 문제가 언급되며, 사회적 안정성 혹은 연대성이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⁷⁾보스 Gerhard Voss의 언급을 근거로 외에는 이미 90년대 중반 문화가 지속가능성 이해에서 반드시 필요한 차원으로 도입되었다는 시각이다.⁸⁾

독일어권에서 지속가능성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그 중 2001년 “지속가능성의 문화적-미적 차원의 강화를 위한 투칭의 선언”(Tutzinger Manifest für die Stärkung der kulturell-ästhetischen Dimension von Nachhaltigkeit)이 두드러진 성과에 속한다. 이 선언⁹⁾은 앞에서 언급한 유네스코의 요구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전환점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2002년 세계 정상 회의 준비 작업으로 작성된 이 선언은 문화적-미적 차원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구조화시키려는 요구이기도 하였다. 코프뮐러 Jürgen Kopfmüller에 의하면, 이 학술대회와 선언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문화적 도전이고, 지속가능성 정책과 문화정책이 상호 결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공공의식을 환기시키려는 데 있었다.”¹⁰⁾또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사회규범, 가치, 행위패턴으로 변화시키려 하면서 문화는 가치정향의 성찰 수단, 서로 다른 판단구별의 기준들

6) Sacha Kagan, *Art and Sustainability. Connecting Patterns for a Culture of Complexity*, Bielefeld 2013, p.14.

7) Vgl. Ebd., S.46.

8) Vgl. Ines Oehme, “Stand der Nachhaltigkeitsdiskussion: Eine Übersicht zur Konzeptualisierung im deutschsprachigen Raum,” a.a.O., S.219.

9) 이 선언은 투칭의 신학 대학에서 개최된 “지속가능성의 미학” 학술대회의 결과물이다.

10) Ebd. S.52.

과 관심들을 고려케 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¹¹⁾

이러한 요구들을 문화정책으로 수렴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앞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새로운 문제제기는 ‘문화’를 생태, 경제, 사회와 동등한 차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 차원과 함께 문화적 차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의 특수한 형태, 견본, 미학을 찾고자 하였고,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전략과 문화적 미적 구상능력 간의 상호관계의 의미가 중요시 되었다. 이런 점에서 문화는 이제 세 차원을 발전시키는 도구적 차원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2002년 독일 연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전략에서도 “세대정의, 삶의 질, 사회적 결속, 국제적 책임”이라는 네 가지 통합 원칙이 중요시되었다. 여기에서도 문화와 지속가능성의 주제가 적절하게 성찰되고 다루어지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은 한 사회에서의 창조적 잠재성을 요구하고, 이는 곧 문화적 능력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의 문화’는 기술, 효과 중심의 경향을 넘어서 상상력과 창조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자, 삶의 질의 중요한 부분으로도 간주되었다. 같은 해, 문화정책 보고에서 “지속가능성의 문화-지속가능한 문화”가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그 이후로 여러 출판물들과 학술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 환경 정책적 측면과 함께 문화적인

11) www.kupoge.de/ifk/tutzinger-manifest: “(...) Das Leitbild Nachhaltige Entwicklung beinhaltet eine kulturelle Herausforderung, da es grundlegende Revision überkommener Normen, Werte und Praktiken in allen Bereichen –von der Politik über die Wirtschaft bis zur Lebenswelt-erfordert. Nachhaltigkeit braucht und produziert Kultur: als formschaffenden Kommunikations- und Handlungsmodus, durch den Wertorientierungen entwickelt, reflektiert, verändert und ökonomische, ökologische und soziale Interessen austariert werden. (...) Das Konzept Nachhaltige Entwicklung kann und muss in der Weise vertieft und weiterentwickelt werden, dass es gleichberechtigt mit Ökonomie, Ökologie und Sozialem auch Kultur als quer liegende Dimension umfasst. Es geht darum, die auf Vielfalt, Offenheit und wechselseitigem Austausch basierende Gestaltung der Dimensionen Ökonomie, Ökologie und Soziales als kulturell-ästhetische Ausformung von Nachhaltigkeit zu verstehen und zu verwirklichen. Eine Zukunftsperspektive kann in einer eng verflochtenen Welt nur gemeinsam gesichert werden. Globalisierung braucht interkulturelle Kompetenz im Dialog der Kulturen.” (KN, 219-220)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연방의 후원을 받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의 의미>라는 연구 프로젝트도 같은 해에 수행되었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두드러진다.

지속가능성과 문화-지속가능성과 예술-의 결합이 조금 당혹스럽긴 해도 그것은 미래와의 결합이다. 느낄 뿐만 아니라 재차 반복하여 후회하고,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에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감당할만한 발전은 기술적 해결, 전문적 논쟁, 정보지식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현재 진전되고 있다. 그 비전은 전체 사회에 대한 요구이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새로운 방향이 포함될 때만이 제대로 이해되고, 극복될 수 있는 요구이다.¹²⁾

이제 세 차원을 넘어서 ‘지속가능성과 문화’가 불가결한 부분 중의 하나로 명백해지고 있다. 이때 ‘문화’는 기술, 정보지식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전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문화적으로 새로운 방향’은 전 사회의 발전 방향을 좌우하는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 즉 문화적 개입과 교육을 통한 사회적 행위분야와 태도방식의 재고 및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쾰 Patric S. Föhl은 예술적, 문화적 시도가 환경주체의 매개체이자 의사소통의 매체로서도, 문화를 만드는 포맷으로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¹³⁾

12) Hildegard Kurt/Bernd Wagner(Hrsg.): Kultur-Kunst-Nachhaltigkeit. Die Bedeutung von Kultur für das Leitbild Nachhaltige Entwicklung, Essen, 2002, S.13: Auch wenn die Verbindung von Nachhaltigkeit und Kultur –oder gar von Nachhaltigkeit und Kunst– noch einiges Erstaunen auslösen mag: Es ist eine Verbindung mit Zukunft. Wiewohl langsam und immer wieder von Rückschlägen begleitet, von Widerständen behindert, entwickelt sich gegenwärtig ein Bewusstsein dafür, dass die Vision einer weltweit sozial- und naturverträglichen Entwicklung keinesfalls auf technische Lösungen, Fachdebatten und Faktenwissen reduziert werden darf. Sie stellt eine Herausforderung an die gesamte Gesellschaft dar; eine Herausforderung, die nur unter Einbeziehung kultureller Neuorientierung angemessen verstanden und bewältigt werden kann.

13) Vgl. Patrick S. Föhl, “Nachhaltige Entwicklung in Kulturmanagement und Kulturpolitik: Neustart oder Placebo? Grundlagen und Diskussionsanstöße,”

2006년 본의 문화정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와 예술”¹⁴⁾이라는 선언이 공포되었다. 주된 내용은 국외의 문화정책과 발전정책 간의 밀접한 공동 작업에 대한 옹호,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천적 제안이었다. 이때 문화 상호 간의 협력, 다른 문화들의 세계구상에 대한 배려, 그것들과의 논의가 공동의 지구적 책임이자, 공동의 지구적 발전의 중요한 전제로 간주되었다. 이 선언의 내용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지속가능성 개념 속에 그 내용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원에서 국내 정책을 넘어 국외 정책으로까지 그 시각을 넓힌 점, 발전정책에서도 문화를 빼놓고 있지 않은 점이 두드러진다. 그룬발드 Armin Grunwald, 코프뮐러 Jürgen Kopfmüller의 지적대로 문화적 차원은 문화 분야의 기관이나 활동에 제한되지 않고, 공동체적 인간 행위와 결정에 토대가 되는 의향과 태도로 이해되고 있다.¹⁵⁾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논의들을 재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네스코에서의 <문화의 힘> 컨퍼런스에서 ‘문화적 창조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이로부터 지속가능성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문화’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가 경제적 요소로 부각되었던 경제사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터이다. 그러나 문화가 세 차원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도구적 역할을 넘어서 그 독자성에 대한 인식도 강화된다. 즉 문화는 전 사회의 가치 정향에도, 새로운 생활패턴을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적 차원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세 차원 모델에서 부분적으로 마지막 사회적 차원에 부속되기도 하고, 또한 세 차원을 개관하는 주제로도 도입되고 있다.¹⁶⁾ 코프뮐러는 “내적, 외적으로 발생하는

Nachhaltige Entwicklung in Kulturmanagement und Kulturpolitik, Patrick S. Föhl/ Patrick Glogner-Pilz/Markus Lutz/Yvonne Pröbstle (Hrsg.), Wiesbaden, 2011, S. 39.

14) <http://www.kulturbewegt.org>.)

15) Vgl. Armin Grunwald/Jürgen Kopfmüller: Nachhaltigkeit,(2.aktualisierte Auflage), Frankfurt am Main, 2012, S. 230.

16) Ebd.

정의의 요구, 전 지구적 시각과 인간중심적 관점¹⁷⁾이 ‘문화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정의의 요청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도출되고, 사회발전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다 최근 웨이트 Oliver Scheytt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와 문화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어떤 발전이 실제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어떤 발전이 무책임한 지에 대해 이전 보다 한층 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모든 정책이 자연적인 생활근거의 유지와 보존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 재차 분명해지고 있다. 복지, 비물질적 가치, 사회에서의 성공적 삶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논쟁이 요구된다. 전적인 물질적 성장, 소비중심, 그리고 자원소비의 증가를 문제로 삼는 의식변화에 대한 외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화정책은 사회정책으로서 인간과 인간생활의 미래 능력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문제되는 사회발전에 대한 대안을 의식화시키는 것도 그러한 과제에 속한다. 그 어떤 사회도 윤리적 기반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스스로 납득하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연환경과의 책임감 있는 관계, 생명에 대한 존중 역시 그러한 것에 속한다. 우리의 생활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문화적 과제이기도 하다. 문화정책 또한 후쿠시마의 위기 이후 공동체의 미래 능력에 책임을 져야 하며, 제대로 숙고하지 않은 채 의사일정에 올려서는 안 된다. 모든 사회적 기관과 조직들은 앞으로 그러한 위기를 막는 데 가능한 한 보탬이 되어야 한다. 하리스부르크, 체르노빌, 후쿠시마는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기억이자 경고이다.¹⁸⁾

17) Jürgen Kopfmüller, a.a.O., S. 47.

18) hier zitiert nach Patrick S. Föhl, a.a.O., S. 42: "(...) Mehr denn je wird gefragt, welche Entwicklungen tatsächlich dem Wohl der Menschen dienen und welche nicht zu verantworten sind. Einmal mehr wird deutlich, dass jede Politik den Erhalt und die Wahrung der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berücksichtigen muss. Notwendig ist eine Debatte über den Wohlstand, immaterielle Werte und neue Formen des gelingenden Lebens in der Gesellschaft. Immer lauter wird der

웨이트의 이 언급은 2000년 이후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을 문화정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시도들을 집약해주고 있다. 그에게 문화정책은 앞의 논의들과 유사하게 인간의 생활방식 일반을 통찰하고, 새로운 문화적 방향을 세우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데 맞서 문화와 문화정책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문화운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은 문화정책의 문제만이 아닌 문화예술경영의 과제와 목표로도 인식되고 있다. 클라인 Armin Klein과 함께 크노블리히 Tobias Knoblich, 벡마이어-포이어한 Sigrid Bekmeier-Feuerhahn 등이 그 대표적인 논객들이다. 문화예술경영의 독자적인 과제와 목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 논의가 있어왔다. 첫째, 문화예술경영의 “서비스 기능”이 그것이다. 이 경우 문화예술경영자에게는 경영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문화, 예술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있다. 그에게 예술적인 구상능력, 문화중재 혹은 문화정책의 능력은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서비스 기능을 전제로 하면서도 문화예술경영자의 능력과 기능을 현저하게 확대시킨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확인된다. 예술과 문화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구상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

Ruf nach einem Bewusstseinswandel, in dem das rein materielle Wachstum, die Konsumorientierung und der zunehmende Ressourcenverbrauch in Frage gestellt werden. Kulturpolitik ist als Gesellschaftspolitik den Menschen und der Zukunftsfähigkeit ihrer Lebensweise verpflichtet. Zu ihren Aufgaben gehört es, Alternativen zu problematischen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en bewusst zu machen. Keine Gesellschaft kann ohne ethische Fundierung auskommen. Kulturpolitik hat deshalb auch die Aufgabe, die Selbstverständigung der Menschen über die Frage zu ermöglichen, wie sie leben wollen. Dazu gehören auch ein verantwortungsvoller Umgang mit der natürlichen Umwelt und der Respekt vor dem Leben. Die Bewahrung unserer Lebensgrundlagen ist auch eine kulturelle Aufgabe. Auch die Kulturfähigkeit des Gemeinwesens stellen und darf nicht ohne Innehalten zur Tagesordnung übergehen. Alle gesellschaftlichen Institutionen und Organisationen müssen nach ihren Möglichkeiten dazu beitragen, eine solche Katastrophe in Zukunft zu verhindern. Harrisburg, Tschernobyl und Fukushima sind Erinnerung und Mahnung für die Kultur und die Kulturpolitik.”

체의 문화 관리자로서 문화예술경영자는 문화정책의 결정에도 개입한다. 이렇듯 문화예술경영자가 조작능력, 의견능력, 정책능력까지 부여받게 된 이유는 문화사업 일반의 환경 변화와 관련이 깊다.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것과 유사하게 문화사업의 공공, 공익, 개인 영역간의 구분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경영자는 서로 다른 여러 영역들을 넘나들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공 분야와 달리 공익, 개인 문화사업은 문화예술경영자의 보다 많은 구상능력, 의견, 정책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화예술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에 입각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은 문화정책의 목표와 과제만이 아니다. 구상 및 정책능력을 부여받은 문화예술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구현하는 동시에, 사회에 전달하는 중재적 역할도 떠맡게 된다.¹⁹⁾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이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중 스타머와 클라인의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경영에서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의 내용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의식변화에서부터, 교육, 세대정의, 창의성, 국제적 협력 등 그 논의 영역은 폭넓다. 여기에서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경영에서의 지속가능성의 형태를 살펴보는 데 그치고자 한다.

1. 지역의 전통보호

지속가능성과 문화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스타머는 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생태학에서 사용되는 폭넓은 문화개념²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로부

19) Vgl. Patrick S. Föhl, a.a.O., S. 44-45.

20) 스타머의 문화개념에는 생활방식 일반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과의 관계도 포괄된

더 그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전 지역의 생활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한다. 가령 한 지역의 특수한 전통, 사투리 형태의 언어가 그것이다. 그는 전지구화가 환경파괴를 동반한다고 보며, 지속가능성의 시각에서 소규모 공간의 사회, 경제적 교류관계를 포함한 환경 친화적 생활방식을 강조한다. 그가 ‘전통’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선 그는 아우어호흐 Bernd Aueroch의 다음과 같은 ‘전통’ 개념에 기댄다.

인간 사회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물질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재생산 가능해야 한다. 상징적 재생산은 사회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적 내용, 문화적 활동, 언어, 시설, 규범, 이전 세대의 작업들을 수용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임무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자연의 조력과 함께 고유한 ‘문화적 지속성의 전략, 이를 테면 전례과정, 전통을 요구한다.’²¹⁾

이런 의미에서의 전통은 생활방식의 정착, 그것의 고정화와 협소화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헤르더 Gottfried Herder의 의미에서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다. 이 후자와 관련하여 프로이트 Sigmund Freud의 다음과 같은 문화개념이 인용된다: “‘문화’라는 단어는 동물의 조상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고, 두 가지 목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와 인간 서로 간의 관계의 규정에 도움을 주는 성과와 준비를 뜻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1908년 마이어의 대 백과사전에서 문화사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개별 시기의 모든 사회적 생활, 혈통, 생활방식, 식량, 거주방식, 위생학, 의복, 가구, 도구, 도덕, 관습, 정의관, 믿음, 미신”도 포함된다. Carsten Stahmer, “Kulturelle Nachhaltigkeit - vom magischen Dreieck zum magischen Viereck?,” *Wechselspiele: Kultur und Nachhaltigkeit*, a.a.O., S. 62.

- 21) Carsten Stahmer, “Kulturelle Nachhaltigkeit - vom magischen Dreieck zum magischen Viereck?,” *Wechselspiele: Kultur und Nachhaltigkeit*, a.a.O., S. 63: “Menschliche Gesellschaften müssen sich sowohl materiell wie symbolische reproduzieren können, um ihre Fortexistenz in der Zeit zu garantieren. Die symbolische Reproduktion stellt Gesellschaften die Aufgabe, ihre kulturellen Gehalte, ihre Praktiken, Sprachen, Institutionen, Normen, Werke von früheren Generationen aufzunehmen und an die nächste Generation weiterzugeben. Hierzu bedarf es, neben dem unverzichtbaren Beistand der Natur, auch eigener ‘kultureller Strategien der Dauer’(A. Assmann): Überlieferungsprozessen, Traditionen.”

“교육적 전통”(bildende Tradition)²²⁾을 말한다. 스타머에게 전통의 중심적인 기능은 행동의 방향, 정체성의 확립에 있다. 그러므로 “전통”은 아스만 Alida Assmann이 정의한 바, “정체성의 지속적인 문화적 구성물로서” “그러한 지속성은 붕괴, 망각, 변화, 상대화의 차원으로서 시간에 맞서 쟁취되어야 한다.”²³⁾ 이러한 전통개념을 스타머는 곧바로 지속가능성 개념과 결부시키면서 뤼젠 Jörn Rüsen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끌어들이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자신의 태생에 대한 보호와 유지를 통한 지속, 유지, 미래성의 문화를 뜻한다. 이것은 고풍적이거나 전통주의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가능성은 현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 전망을 과거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공식화하는 문화이다. 이는 곧 존립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자, 장기간의 시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시각에서는 자신의 태생을 도취한 채 결코 이런 미래에서 저런 미래로, 이른바 더 나은 미래로 망각하지 않는다. 공동묘지, 노인들, 더 나아가 전통과의 관계는 전통보호를 통한 미래보존의 기본적인 선례에 속한다.²⁴⁾

그렇다고 스타머에게 모든 전통이 지속가능성과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치 시대와는 분명한 선을 그으며, 그 시대는 지속가능성과 아무런 연관

22) Hier zitiert nach Carsten Stahmer, a.a.O., S. 63.

23) Aleida Assmann: Zeit und Tradition. Kulturelle Strategien der Dauer, Köln, Weimar, Wien, 1999, S. 90

24) Hier zitiert nach Carsten Stahmer, a.a.O., S. 63-64: “Nachhaltigkeit zeichnet eine Kultur der Dauer, der Bewährung und der Zukunftsfähigkeit durch einen pflegenden und bewahrenden Umgang mit der eigenen Herkunft aus. Das ist gar nicht altväterlich-traditionalistisch gemeint. Nachhaltigkeit ist vielmehr eine Kultur, in der die jetzt lebenden Menschen ihre eigene Zukunftsperspektive immer darauf formulieren, wie sie anschlussfähig an die Vergangenheit ist. Das heißt eben nicht nur Bestandsbewahrung, sondern die Entwicklung einer längerfristigen Perspektive, in der man die eigene Herkunft nicht im Taumel von der einen in die andere, in die angeblich bessere Zukunft hinein vergisst. Der Umgang mit Friedhöfen, der Umgang mit den Alten, der Umgang auch mit der Tradition ist ein elementares Beispiel dieser Zukunftswahrung durch Traditionspflege.”

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는 미래 사회에 모범이 되는 전통으로 특히 사회적 결속의 측면, 공동소유 형태를 취한 농부공동체를 꼽는다. 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족적인 결속도, 공간적인 결속도 없이 자유롭게 부유하는 모나드로서의 작금의 유목시대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데 있다. 가족, 고향에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는 도시 및 지역에 사회적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조를 만들어 전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호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으로 옛 수공업예술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전시물을 갖춘 고향박물관, 자연박물관, 공예와 도시사 박물관을 들고 있다. 문화협회가 해야 할 일로는 옛 도덕과 관습에 대한 기억을 보호한다던가, 구두로 전해온 것을 녹취하는 작업들도 꼽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스타머가 볼 때 정책적으로 후원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타머의 ‘지속가능한 문화’는 전지구화에 맞선 ‘지역의 전통 보호’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90년대 유네스코에서 공식화한 바 있는 ‘문화적 유산과 문화적 다양성의 유지’(Erhaltung des kulturellen Erbes und der kulturellen Vielfalt)라는 차원을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 2000년 이후 독일어권에서 인간의 의식변화를 비롯한 생활방식 일반에 대한 통찰이 포함된 ‘문화적으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정책 제시에까지 미치고 있지 않다.

2. 클라인의 제안-수요자 중심과 관객개발

클라인은 스타머와는 다소간 다른 관점을 취한다. 클라인은 2005년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경영의 목적으로서 지속가능성-토론제안”에서 1987년 부룬트란트 보고서에서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문화운영에 직접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때 그는 그 개념의 기원을 칼로비츠Hans Carl von Carlowitz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칼로비츠는 나무를 벌채할 때 그 장소에 새로운 것이 다시 자랄 수 있게 하는 배려, 즉 나무심기, 성장, 벌채의 균형²⁵⁾을 요구하였는데, 그 의미를 문화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려 한다.

25) 이에 대해 김화인,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개념의 형성사-18세기 독일 산림학 이론과 실제에서의 의미내용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2권 제1호, 466쪽 참조.

이용자 측면에서의 제한 즉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 정책적 프로젝트가 결의되어야 한다. 후세의 부담과 비용의 관점에서 미래 세대들이 스스로 구상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 세대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결정분야’에 구속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문화와 예술의 미래 이용자들에 대한 *획득과 구축을 위한 능동적이며,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조치*의 광범위하고, 열정적인 장악을 뜻한다.(...)26)(강조 클라인)

이에 입각하여 클라인은 독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문화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클라인은 우선 독일 문화정책이 근본적으로 공급중심적이고, 구조 보존적이라는 데 비판적이다. 스타머가 ‘문화적 유산과 문화적 다양성의 유지’ 차원에서 지역 전통의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클라인은 인프라 구조의 유지에 급급한 정책에 대해 거리감을 취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그는 우선적으로 수요자 측면을 강조한다. 수요의 충분한 고려없는 공급중심의 한 예로 클라인은 문학후원(Literaturförderung)을 들고 있다. 독일은 거의 모든 콤포트에서 문학상을 수여할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문학상과 장학금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 클라인은 “도서시장 후원, 작가들 후원, 독서후원”이 존재하는데, 어느 분야를 후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묻는다.²⁷⁾ 클라인이 볼 때 문학의 창작과 판매, 즉 공급에 우선을 두기보다는 독서, 즉 수요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독일은 시립도서관의 예산을 줄이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수수료까지 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클라인이 볼 때 결코 수요자 중심이 아니다.

이와 동시에 거대 프로젝트, 함부르크의 엘프필하모니와 바덴바덴의 축제

26) Armin Klein/Thomas Knubben(Hrsg.): Deutsches Jahrbuch für Kulturmanagement 2003/2004, Baden-Baden 2005, S. 14: “eine Begrenzung auf der Nutzungsseite, d.h. dass in Zukunft nur noch solche kulturpolitischen Projekte beschlossen werden sollten, die unter dem Gesichtspunkt der Folgelasten und -kosten zukünftigen Generationen eine von ihnen gestaltbare Kulturpolitik ermöglichen und sie nicht in unüberwindliche ‘Sachzwänge’ einschnüren; Das sehr viel breitere und engagierte Ergreifen von aktiven und vor allem systematischen Maßnahmen zur Gewinnung und zum Aufbau zukünftiger Nutzer von Kunst und Kultur(...)”

27) Armin Klein: Der exzellente Kulturbetrieb, Wiesbaden, 2007, S. 120.

건물신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한다. 전자는 계획의 시점에 재정지원이 충당되지 않아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데 있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0년에 걸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보다 큰 문제는 시가 콤포의 음악학교 문까지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데 있다. 비용을 후세대가 지불해야하는 것을 넘어서 후세대가 누려야할 문화교육 및 문화향유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서 드러나고 있듯, 명성중심의 문화운영은 결코 지속가능한 문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프뤼프스트레 Yvonne Pröbstle도 명성중심의 문화운영을 지속가능성의 시각에서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흔히 ‘빌바오-효과’(Bilbao-Effekt)라고 불리는 구겐하임 박물관을 그 예로 들고 있다. 1997년 빌바오는 구겐하임 박물관의 개장으로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4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211,000,000 유로 가치창출, 29,000,000 유로나 되는 시 재정의 이익을 가져왔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앞을 다투었다. 낙후한 산업도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프뤼프스트레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못지않은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임금 상승이 일반적인 생계비 유지비용의 상승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인프라구조의 확장과 재개발프로그램 부분 투자를 통해 전체 부동산가격이 150%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구조변화를 통해 실업률은 1985년 25%에서 2006년 7%로 감소하였다. 반면 2000년부터 극빈 생활자가 33%에 육박하였고, 2002년부터 빈민구제기금을 받는 가계가 38%로 상승하였다. 이렇듯 도시구조 변화는 실업률은 크게 떨어뜨렸음에도 빈부 간의 격차를 심화시켜 상대적인 빈곤감을 높였다. 특히 도시의 문화적 지형 자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문화 창작에 대한 지원이 협소해졌고, 현지 예술가들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조차 부족한 상태가 된 것이다. 프뤼프스트레는 지속가능성은 한 측면에서가 아닌, 다차원적 고찰방식²⁸⁾이 요구된다고 하며 ‘빌바오-효과’에 대해 비판적

28) Vgl. Yvonne Pröbstle, “Über den kulturbetrieblichen Tellerrand hinaus. Anregung zu einer mehrdimensionalen Denk- und Handlungslogik im Kulturmanagement am Beispiel Kulturtourismus,” Wechselspiele: Kultur und Nachhaltigkeit, a.a.O., S. 70.

이다.

이러한 명성중심, 이벤트 중심의 문화예술운영이 갖는 문제점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인용한 글 중 “문화와 예술의 미래 이용자들에 대한 획득과 구축을 위한 능동적이며,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조처의 광범위하고, 열정적인 장악”에 대해 알아보자.

클라인은 우선 문화공급의 이용자들을 4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여러 문화공급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인구 3-5% 정도에 해당하는 집중-이용자 둘째, 인구 45%에 해당하는 무계획적인 이용자 그룹 셋째, 어떤 이유에서든 특정한 문화공급에 대해 문의하지 않는 그룹이나 개인, 하지만 이들은 문화와 예술에 민감하므로 잠재적인 이용자 넷째, 인구의 50%에 이르는 비이용자가 그것이다. 이 네 번째 그룹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화 혹은 예술 생산에 관심이 없다. 이들은 다른 영역, 스포츠나 클럽에서 활동하는 부류에 속한다. 이들과 같이 문화공급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이유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 ‘유년기’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인은 콜버트 Francois Colbert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예술과 접촉할 수 있고, 아마추어로서 예술의 형태를 일상에 적용하는 가족에 의해 중재되는 가치관, 학교에 의해 중재되는 가치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미나 좋아하는 것은 이미 20대 전에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술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모든 조처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한 가치관 혹은 교양의 배경을 갖지 못한 성인이 50세에 스스로 오페라나 발레를 발견하는 일이란 만무하다. 그러한 일이 물론 있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예외에 가깝다.²⁹⁾

유년기에 문화와 예술을 접하게 하지 않고는 문화예술의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화적 사회화와 함께 또래 그룹들에 의한 사회화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2002년 독일 무대협회는 14-29세, 극장 미 방문자를 조사대상

29) Francois Colbert, “Marketing und Konsumentenverhalten im Bereich Kunst,” Innovatives Kunstmarketing, Armin Klein(Hrsg.), Baden-Baden, 2002, S. 45.

으로 삼았는데, 이들의 3분의 2가 극장 미 방문의 중요한 이유로 주변 친구들을 꼽았다. 주변 친구 누구도 극장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 결과 추천하는 누구도 없다고 답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문화와 예술의 수요는 가족, 친구 등 가깝고 친밀한 주변 환경과 밀접하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클라인이 볼 때 ‘수요자 획득’이 우선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벤트 중심의 문화운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다. 가령 어떤 박물관에서 획기적인 문화기획을 통해 단번에 많은 관람객을 불러들이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관람객이 일회적 방문을 넘어서 지속적인 박물관 수요자가 되느냐이다. 클라인은 이벤트 중심 문화운영으로는 가능치 않다는 입장이다.

독일어권에서는 지난 70년대 이래로 박물관교육과 극장교육이 정착되어 있다. 클라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마케팅 문제를 제기한다. 앞에서 그가 네 종류로 분류하였던 세 번째, 네 번째 그룹, 즉 잠재적인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 이용자들이 가족과 친지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로부터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마술피리》와 같은 작품을 그 예로 든다. 이와 동시에 “의도적이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관객개발’(Zuschauerentwicklung)³⁰⁾을 시급한 요구 사안으로 꼽는다.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의 한 예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예술박물관 중의 하나인 시카고 예술 기관의 체계적인 ‘관객개발 계획’³¹⁾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클라인은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경영의 문제로 끌어들이면서 일종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구하고 있다. 즉 문화기관의 존속을 위해서는 명성 중심의 문화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마케팅 기법의 적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클라인은 칼로비츠의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가운데 ‘문화적 지속가

30) Armin Klein, a.a.O., S. 126.

31) Ebd., S. 127: “특수한 시장세분화 내에서 가끔 오는 관객을 빈번히 오는 관객으로 만든다. 빈번하게 오는 관객을 회원으로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회원을 자선에의 참여와 호소를 통해 참여도가 높은 박물관참가자로 구축한다.”

능성'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문화기관, 문화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논구는 미흡하다.

IV.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지대한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2005년 유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10년을 지정한 이후 교육, 특히 예술교육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도이다. '예술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사고의 확장',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미술과 지도 방안연구' 등이 그와 관련한 연구 성과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문화, 예술기관 운영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베이징 798예술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는 베이징 798예술지구가 상업화되면서 예술지구로서의 장소성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문제 삼고 있고, 그 해결 방안으로 정책과 문화예술경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은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독일어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의 일부가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을 드러내는데 그쳤다.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차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폭넓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문화운영과 그 실례들,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문화행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구가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권유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미술과 지도 방안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Vol.25, 2010.
- 김화임,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개념의 형성사-18세기 독일 산리학 이론과 실제에서의 의미내용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2권 제1호, 2015.
- 정연희, 「예술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사고의 확장」, 『미술과 교육』 Vol.12 No.1, 2011.
- 한평, 「베이징 798예술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Vol.12, 2013.
- Assmann, Aleida, *Zeit und Tradition. Kulturelle Strategien der Dauer*. Köln, Weimar, Wien, 1999.
- Colbert, Francois, “Marketing und Konsumentenverhalten im Bereich Kunst”, in: *Innovatives Kunstmarketing*, Armin Klein(Hrsg.), Baden-Baden, 2002.
- Föhl, Patrick S., “Nachhaltige Entwicklung in Kulturmanagement und Kulturpolitik: Neustart oder Placebo? Grundlagen und Diskussionsanstöße”, in: *Nachhaltige Entwicklung in Kulturmanagement und Kulturpolitik*, Patrick S. Föhl/ Patrick Glogner-Pilz/Markus Lutz/Yvonne Pröbstle (Hrsg.), Wiesbaden, 2011.
- Grunwald, Armin/Kopfmüller, Jürgen : *Nachhaltigkeit*,(2.aktualisierte Auflage), Frankfurt am Main, 2012.
- Kagan, Sacha, *Art and Sustainability. Connecting Patterns for a Culture of Complexity*, Bielefeld, 2013.
- Klein, Armin, *Der exzellente Kulturbetrieb*, Wiesbaden, 2007.
- Klein, Armin/Knubben, Thomas(Hrsg.), *Deutsches Jahrbuch für Kulturmanagement 2003/2004*, Baden-Baden, 2005.
- Kopfmüller, Jürgen, “Von der kulturellen Dimension nachhaltiger Entwicklung zur Kultur nachhaltiger Entwicklung,” *Wechselspiele: Kultur und Nachhaltigkeit*, Oliver Parodi/Gerhard Banse/Axel Schaffer(Hrsg.), Berlin, 2010.
- Krainer, Larissa/Trattning,Rita (Hrsg.), *Kulturelle Nachhaltigkeit. Konzepte, Perspektiven, Positionen*, München, 2007.
- Kurt, Hildegard/Wagner, Bernd(Hrsg.), *Kultur-Kunst-Nachhaltigkeit. Die Bedeutung*

von Kultur für das Leitbild Nachhaltige Entwicklung, Essen, 2002

Oehme, Ines, “Stand der Nachhaltigkeitsdiskussion: Eine Übersicht zur Konzeptualisierung im deutschsprachigen Raum”, *Kulturelle Nachhaltigkeit. Konzepte, Perspektiven, Positionen*, Larissa Krainer, Rita Trattnigg(Hrsg.), München, 2007.

Pröbstle, Yvonne, “Über den kulturbetrieblichen Tellerrand hinaus. Anregung zu einer mehrdimensionalen Denk- und Handlungslogik im Kulturmanagement am Beispiel Kulturtourismus, in: *Wechselspiele: Kultur und Nachhaltigkeit*, Oliver Parodi/Gerhard Banse/Axel Schaffer(Hg.), Berlin, 2010.

Stahmer, Carsten , “Kulturelle Nachhaltigkeit – vom magischen Dreieck zum magischen Viereck?,” *Wechselspiele: Kultur und Nachhaltigkeit*, Oliver Parodi/Gerhard Banse/Axel Schaffer(Hg.), Berlin, 2010.

<http://www.kulturbewegt.org>

www.agenda21-treffpunkt.de/archiv/ag21dok/index.htm

❖ ABSTRACT

A Cultural Dimension of Sustainability
-Focusing on Cultural Policy and Arts Management in Germany-

Kim, Hwa-Im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generally related to a triptych of social justice, ecological integrity, and economic well-being. It aims at a development of human societies that would achieve the reconciliation of social justice, ecological integrity, and the well-being of all living systems an the planet.

Furthermore, the ques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es on economic, ecological, and social dimensions. interdependence of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riginal syntax was not quite standard English, i.e., it was also unclear and vague. Ergo, this is a hypothetical edit. If you demur, then please rectify it.

In Germany, th “Tutzinger Manifest” also includes the cultural dimension as a major dimension of sustainability, thereby arguing for the integration of culture in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and furthermore for the building of networks in order to overcome this gap. The cultural dimension of sustainability in Germany involves not only cultural policy, but also culture management

Key Words

sustainability, cultural policy, arts management, Bilbao effect, audience development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